

# 한국문학 번역과 번역 비평의 가능성

*The Vegetarian*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영현\* · 배하은\*\*

## 목차

1. 들어가며: 번역에서 문학 번역으로
2. 번역 스캔들에서 번역 비평으로: 번역의 정치성, 번역가의 위치성
3. 번역 비평과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The Vegetarian*의 사례를 중심으로
4. 혼질성과 타자성의 문제: *The Vegetarian*을 둘러싼 번역의 윤리와 페미니즘 번역의 정치학
5. 결론을 대신하여: 번역 비평의 새로운 논점들

번역자의 과제는 원작의 메아리를 깨워 번역어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의도, 번역어를 향한 바로 그 의도를 찾아내는 데 있다. 여기에 바로 문학작품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번역의 특성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의 의도는 결코 언어 자체, 그 언어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언어적 의미 연관만 직접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은 문학작품과는 달리 자신이 마치 언어 내부의 숲속 자체에 있는 듯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숲의 외부에서 그 숲과 대면한다고 여기는 그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원작을 불러들이는데, 자신의 언어로 울리는 메아리가 낯선(원작의) 언어로 쓰인 작품에 대한 반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불러들인다. 번역의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 공동 제1저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양학부 조교수, 공동 제1저자

의도는 문학작품의 의도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것, 즉 낯선(번역자의) 언어로 재현된 개개 예술작품의 언어 전체를 지향하는 것만 아니다. 번역의 의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것이기도 하다.

—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중에서

## 1. 들어가며: 번역에서 문학 번역으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2007)와 『흰』(2016),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2021), 정보라의 소설 『저주토키』(2017), 박상영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2019),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2017, 2020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부문), 편혜영의 소설 『홀』(2016, 2018 미국 셜리 잭슨상), 윤고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2013, 2021 영국 대거상 번역 추리 부문) 등 최근 한국문학이 해외 국제 문학상의 최종 후보로 거론되거나 수상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해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sup>1</sup> 영화와 드라마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이 웹툰과 웹소설, 에세이 그리고 한국 문학으로 경계를 넓히는 중이다. 번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도이다.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문화적 성격을 형성해 온 한국 사회에서 번역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번역은 해외의 문학과 문화를 한국어로 소개하는 것으

1 K-문학 열풍의 실상을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출판 통계는 문학 출판의 3%(약 4백종 내외)가 비영어권 번역문학으로, 그 가운데 아시아권 작품이 50여종, 한국어 작품이 매년 10여종 내외로 출간된다. 다만 번역물의 비중이 적고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인 영미 출판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의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은 전례 없는 성과임이 분명하다. 해외출판계에서 번역된 한국문학의 영향력은 의미 있는 순위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곽효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2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21~31쪽; 권영민, 『세계 무대 위의 한국문학』, 『2022년도 상반기 한국근대문화회 제46회 학술대회: K-리터처를 말한다』, 2022.8.13., 2~3쪽.

로 이해되어 온 편이다. 최근 한국문학이 번역 출판되어 세계문학의 독서 시장에 소개되는 상황은 번역의 방향성이나 범주와 기능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요청한다. 이른바 번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번역의 쌍방향적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고 번역과 문학 번역의 차이를 곱씹으며 번역이 노출하거나 강화하는 언어 간, 문화 간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문학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이해되며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라는 의미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는 이 과정은<sup>2</sup> 한편으로 번역 자체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 특히 문학 번역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전문화를 요청한다고 하겠다.

따지자면 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은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의 부커 국제상 수상 이후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한국에서 번역(가)의 역할(자리)에 대한 관심도 사실상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 텍스트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The Vegetarian*의 번역의 정확성 논란을 통해 본격화되었다.<sup>3</sup> 번역의 정확성 차원에서 *The Vegetarian*에서 상당수의

2 이것은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에서 나아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진전된 방향성이기도 하다.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 첫 장 열겠다”』, 『한겨레』, 2021.7.6. 황정아는 세계문학 이념의 진정한 실현과 세계문학 공간에서의 불평등 해결이라는, 세계문학 범주 구성의 핵심에 놓인 두 문제가 곧바로 한국문학의 과제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황정아,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2022년도 상반기 한국근대문학회 제 46회 학술대회: K-리터리처를 말한다』, 2022.8.13., 10쪽.

3 수상이 확정된 이후로 초기만 하더라도 번역가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점차로 원 텍스트와의 비교 대조 속에서 원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번역으로, 그 논조도 비판 쪽으로 기울었다. 3,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논란의 중심에는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이 놓여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 ‘충실성’은 번역과 관련해 오해를 초래하는 철 지난 개념으로 쓸모없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때 편집자가 저에게 해준 딱 한 가지 충고는 ‘더 많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번역자는 리듬이나 언어 사용 능력 등에서 원작을 가능한 한 제대로 포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역자가 궁극적으로 충실해야 하는 것은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성입니다. 한 편의 훌륭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은 한 편의 훌륭한 영문학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방해가 될 뿐이라면 구문 같은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단어의

오역과 과장된 번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sup>4</sup> 오역을 판정할 준거 역시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환기하

선택이나 구문 등의 차원에서 원작에 지극히 ‘충실’한 번역은 원작의 독자가 했을 경험, 즉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는 경험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한 번역일 가능성이 대단히 큼니다.”(Montgomery, 2014.6.15.)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The Vegetaria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June 15th, 2014.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 이인규,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한국번역학회, 2017, 177쪽. 그러나 사실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성을 평가하는 기준(국가, 인종, 언어 등)을 고려하자면, ‘충실성’을 비판하고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성을 강조하는 스미스의 번역관이 오페하는 면모들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 4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국내의 외국어 문학 분과 특히 영문학 분과와 통번역학 분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번역 텍스트에서 변화된 작품성에 대한 비판이 한국학을 전공한 한국어 학습 경력이 길지 않은 번역가의 한국어 이해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오역과 의역을 짚어 비판하는 데에서 나아가 번역가에게 재번역과 재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문학 전공자이자 번역가인 조재룡에 의해 한국어의 특징인 생략된 주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스미스의 한국어 실력과 그 귀결인 오역과 의역 그리고 작품에 대한 자의적 번역이 결과적으로 원 텍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번역 텍스트를 등장시켰음이 비판되었다.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간극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보충되면서, 작품 속 인물 특히 주인공 영혜와 장소, 영혜 남편의 성격이 바뀌어 영미권 독자들의 작품 이해가 한국 독자와는 꽤 다를 수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공유되기에 이르렀고, 실수에 의한 소소한 것에서 의도적인 의역이나 오역에 이르기까지 번역 텍스트 *The Vegetarian* 이 영미권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며, 점차 논의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에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김영신,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6, 37-55쪽; 이강선, 『고택락에서 저택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겨레어문학회, 2016, 277-312쪽;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1-59쪽;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90, 2017 봄, 1-21쪽; 김빈,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 영미문학연구회, 2017, 5-34쪽; 조의연·조숙희,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연구』 20(5), 한국번역학회, 2019, 197-216쪽; 이지민,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반응 비교 연구』, 『번역학연구』 19(4), 한국번역학회, 2018, 149-183쪽. 더구나 번역의 정확성이 번역가의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가령, 최근 김이듬의 시집 『히스테리아』 등을 번역했고 미국 출판사 ‘블랙오션’(Black Ocean)에서 한국 시 영역 본 시리즈인 ‘문 컨츄리’(MOON COUNTRY)를 만들어 다른 번역가들의 한국 시 영

자면, 한국학 교수이자 번역가인 전승희의 지적처럼,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이다.<sup>5</sup> 번역의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문학 번역 작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들이 그간의 논의를 맞고 틀리는 판정의 차원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성찰해야 할 논점의 문제로 옮겨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국제 문학상이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사의 결과라는 사실은 고평된 문학작품의 가치가 원 텍스트의 그것과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그 간극이 언어 간 차이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한국어와 영어 사이 언어 간 위계와 언어를 통해 표출되는 문화적 위계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 논점의 복잡한 맥락은 좀더 두터워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번역의 정확성 논란을 재고하되 오역 논란을 다시 시작하면서 논의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가 마련한 한국문학과 번역을 둘러싼 새로운 시야를 세심하게 추적하며 그것이 열어주는 논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sup>6</sup>

세분해서 들여다보자면, 번역된 한국문학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번역가의 역량에 대한 상찬이나 비판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대도시의 사랑법』과 『저주토키』의 번역가인 안톤 허나 천명관의 『고래』(2004)의 번역가인 김지영 역시 데보라 스미스 못지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언어 간 가교역할에 머무는 것을 거

---

역본도 편집·출간하고 있는 번역가 제이크 레빈은 “과거 한국문학을 번역한 일부 작품들에서 오역 논란이 일었던 것은 번역가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편집자와 원작자의 감수를 적절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가야금을 영어로 하면?”…한국말 서툴지만 한국시에 빠진 미국 시인』, 『매일경제』, 2023.6.7.

- 5 전승희, 『한국문학 번역가의 책무』, 『K 문학의 탄생』, 김영사, 2023, 297~298쪽.
- 6 물론 *The Vegetarian* 번역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번역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둘러싼 논의가 탈맥락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은 문학과 마찬가지로 번역 역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하고 번역의 창조적 가치를 강조하며 나아가 번역가의 위상을 저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관심을 둔다.<sup>7</sup> 이러한 상황은 번역으로 통칭되지만 좀더 분명하게 문학 번역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다른 한편 번역이 번역가의 구체적 수행성을 통해 구현되는 작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 텍스트인 *The Vegetarian*의 오역과 의역을 둘러싼 논의들을 메타적으로 검토하되, 번역가의 위상이 부상하고 그 자리가 부각되는 현상과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언어의 층위가 아니라 번역이 이루어지는 번역가를 통해 해체되고 구축되거나 강화되고 재편되는 문화의 층위, 즉 문학 번역의 정치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진전된 논의 지평을 열고, 다른 한편으로 언어 간-문화 간 위계를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페미니즘적 재배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필 것이다. 아울러 텍스트 연합체로 구현된 대상 텍스트와 번역가를 관통하는 국경, 언어, 문화, 시차로 구현되는 권력의 불균형성을 포착하기 위해 번역 비평의 범주와 함의를 언어의 층위에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소수어인 한국어로 창작된 문학이 국경 바깥으로 번역 소개되는 과정이 한국문학의 출판과 독서 풍경에도 어떤 변화를 점진적으로 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7 안톤 허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부커상은 영어로 번역·출간된 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상을 받은 건 국내 출판사가 만든 한국어 책이 아니라 영국 출판사가 만든 제 책이지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국내 작가 두 명이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고만 해요, 제 애긴 쏙 빼고. 번역가가 무시당하거나 이름이 지워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부커상만큼은 그러면 안 되죠.” 『한겨레』, 2022.4.29.), 2023년 부커 국제상 후보에 오른 천명관의 소설 『고래』(2004),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황선미의 『마당』(나온 암탉) 그리고 김영하의 『빛의 제국』, 조경란의 『혀』 등 다수의 한국문학을 번역한 김지영도 다르지 않다. 그 역시 “더 많은 한국문학이 해외 독자들과 만나려면 번역가를 작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한”(『고래』 번역한 김지영 “민담 같은 문체·비교는 유머에 신경 썼죠”, 『연합뉴스』, 2023.4.20.) 상향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는 번역가에 대한 존중과 저작권 보호 및 인세 정상화를 요청한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한국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그 범주 확장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면, 한국문학 번역을 둘러싼 번역 비평 작업은 번역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중층적 구성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번역 스캔들에서 번역 비평으로:

### 번역의 정치성, 번역가의 위치성

번역은 결코 순조롭게 이뤄지는 의사소통이 아니다. 번역은 텍스트 내의 이국적인 것에 대한 판정과 취사선택 혹은 변용의 과정을 포함하는 정치적 행위이다.<sup>8</sup> 오역과 의역 논란은 원천 언어와 번역어, 원작과 번역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충실성과 배반의 딜레마를 환기하면서 번역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가담했다.<sup>9</sup> 논란을 거치면서 번역에 대한 관심은 번역의 정확성에 그치지 않고 번역 문학에 대한 평가로 확대되었다. 번역 작업이 언어 간 동등한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전달이 아니며 언어 변환일 수만도 없다는 인식이 논의의 전제가 되었고, 초점화해야 할 논점이 문학 번역의 범주로 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해졌다. 번역 이론가이자 번역가이기도 한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를 빌려 말해보자면 ‘번역의 윤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 것이다.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이 영어권 문학의 문화 규범이나 출판 경향에 맞춰 조정되면서 영어-문화권이 갖는 전세계적 패권에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과연 그 문학 번역의 의미를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번역의 정치성이 논의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바, 번역

<sup>8</sup> 로렌스 베누티, 임호경 옮김,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26쪽.

<sup>9</sup> 번역 논란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3,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더 세심하게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협소한 의미에서의 번역의 완성도나 수준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었던 영어 번역 텍스트인 *The Vegetarian*에 대한 평가가 원작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중첩적 맥락 속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 외에서 문학(의 가치)와 번역(의 수준)의 분할적 가치를 논의하던 두 영역 사이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역과 의역 논란을 벗어나서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이 세계문학의 차원에서, 즉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다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와 비평의 대상이 되는 추세이다.<sup>10</sup> 이러한 변화는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의 정확성 논란에서 유용한 논점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장된 논의 범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문학과 번역 문학의 의미가 분리할 수 없는 연합체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는 일을 번역 비평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번역 비평을 통해 번역 작업이 가시화하는 언어적/문화적 위계의 정치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번역의 주요 논점들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 문학 번역은 매끄럽게 읽혀야 하는가? 문학 번역은 가독성을 높이는

---

<sup>10</sup> Charse Yun, "How the bestseller *The Vegetarian*, translated from Han Kang's original, caused an uproar in South Korea", *Los Angeles Times*, Sept. 22, 2017; Wook-Dong Kim, "The 'Creative' English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by Han Kang", *Translation Review* 100, 2018; Rose Casey, "Willed Arboreality: Feminist Worldmaking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0; Dominic O'Key,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reading with and against world literary prestige", *Textual Practice* 36(8), 2021; Seul Lee, "Enforced Conviviality and the Violence of Care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2; Danielle Sands, "Interrogating 'Feeling Politics': Animal and Vegetal Empathy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3.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문학에 대해, 번역에 대해, 이것은 진전인가? 달리 질문할 수도 있다. 번역가는 원 텍스트의 맥락에 충실해야 하는가, 원 텍스트의 언어 조건에 충실해야 하는가. 오히려 번역 텍스트의 독서 환경이나 번역 텍스트 독자의 언어 맥락에 좀더 충실해야 하는가. 저자를 위해 독자를 저자에게로 데려가야 하는가, 독자를 위해 저자를 독자에게로 데려가야 하는가. 문화적 관습이 응축되어 있는 “문자(lettre)”에 따라야 하는가,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가. 충실해야 하는가, 자유로워도 좋은가.<sup>11</sup> 번역의 비극이자 번역가의 딜레마로서 특히 문학 번역 작업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번역 작업 자체가 매번 이 질문 앞에서의 답안 찾기가 타협의 과정일 것이다.<sup>12</sup> 번역을 원천 언어에서 번역어로의 일방향적 변환 과정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원 텍스트와 원천 언어에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번역은 벤야민이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두 개의 죽은 언어들 사이의 생명 없는 동일성”과는 꽤 다른 일이다.<sup>13</sup>

벤야민의 번역론에 입각해 보면, 번역은 언어로 형상화된 것 너머에 존재하는 것과 연관된다. 벤야민은 모든 언어와 그 형상물에는 전달 가능한 것 이외의 전달 불가능한 것 즉, 맥락에 따라 형성된 ‘상징하는 것

11 앙트완 베르만, 윤성우·이향 옮김,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철학과현실사, 2009, 295~296쪽.

12 이 질문에 대한 합의된 인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개별 번역가가 갖는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번역 방법론이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질문들에는 오랜 연원을 가진 폴 리쾨르(Paul Ricœur)에 의해 재호명된 등가성과 충실성을 포함해서 직역/의역, 창조적 번역/도구적(기록적) 번역, 벤야민의 충실성과 자유,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의 자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자국화와 이국화 등 번역론을 둘러싼 연원 긴 다양한 논의가 뒤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복잡성은 번역 작업 특히 문학 번역 작업 자체가 방법론이나 이론의 선명성에 기댈 수도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13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128쪽.

(Symbolisierendes)' 이외의 상징된 것이 남는다고 본다. 전달 불가능한 것 또는 상징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번역으로 보는 것이다.<sup>14</sup> 흥미롭게도 벤야민의 이러한 번역론은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의미와 형식 사이의 위계질서를 뒤흔드는 번역론에 가닿게 한다. 벤야민의 번역론이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대목에서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 보자면, 번역을 문자 텍스트들 사이의 간-언어적 교환행위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 자체를 넘어서는 상이한 문화간의 충돌과 소통인 교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거점으로 번역 패러다임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sup>15</sup> 물론 번역론이 좋은 번역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자면, 위계를 뒤흔드는 일만으로 좋은 번역에 이를 수는 없다. 가닿을 수 없는 등가성(correspondance/equivalence) 개념을 복원하면서, 지적, 이론적, 실무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결합시켜 번역론을 진전시킨 폴 리쾨르 Paul Ricœur를 빌려 말해보자면, 좋은 번역의 가능성은 완전한 번역의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열릴 수 있다. 번역가는 언제나 두 주인(원천 언어와 번역어,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을 동시에 섬기면서 배반해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이 시련을 정면으로 겪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번역 작업이자 좋은 번역에 이르는 일인 것이다.<sup>16</sup>

앞서 번역가의 자리를 좀더 가시화해야 한다는 요청은, 번역가 당사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로렌스 베누티는 지금 이곳의 번역에 대한 인식과 번역가의 위치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얽혀 있는 상황을

---

14 위의 글, 139쪽.

15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2), 한국영어영문학회, 2011, 217-235쪽.

16 폴 리쾨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2006, 88-89쪽.

비가시성과 투명성, 그리고 유려함(fluency)의 문제로 다룬다. 번역(된) 문학의 독서는 번역가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번역 문학에 대한 오랜 독서 관행은 독서를 방해하는 문체나 어법 사용에, 종종 미달태의 번역이라는 의심과 평가를 덧씌워 왔으며, 이러한 독서 관행이 번역과 번역가의 자리를 투명하게 만들고 비가시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번역가의 자리가 창문처럼 투명해질수록 원 텍스트의 의미가 더 잘 보인다고 여기게 된 것은 그래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원 텍스트처럼 읽히는 번역 텍스트에 번역(가)의 노고가 더 많이 투여되기 마련이지만, 자연스러운 쪽으로, 정확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번역에의 노력이 강화될수록, 번역가의 자리는 그에 비례해서 좀더 쉽게 희미해지거나 흔적 없이 지워질 수 있다. 번역 작업과 번역가의 자리를 둘러싼 역설이 아닐 수 없다.<sup>17</sup> 번역 비평으로 명명할 수 있는, 번역가의 위치성에 주목하는 번역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번역 비평의 이름으로 번역과 번역가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간 번역 비평이 한국문학 번역 논의의 장에서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근접성에 집중하는 비평과 번역 텍스트의 (가독성을 포함하는) 품성 평가에 집중하는 비평이 있었지만, 통번역학을 중심으로 한 근접성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 번역 비평은,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의 이론적 작업에 기대 보자면, 자민족중심적이고 하이퍼텍스트적인 방식에 기초한<sup>18</sup> 번역의

<sup>17</sup>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2008, ch.1.

<sup>18</sup> 베르만은 자민족중심적 번역의 두 가지 준칙을, 이국의 작품을 번역하되, 번역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준칙과 마치 원저자가 도착 언어로 글을 썼다면 그렇게 썼을 법한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준칙으로 거론하고, 두 준칙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앙트완 베르만,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철학과현실사, 1999, 47쪽.

투명성이라는 환상을 해체하고, 번역가의 자리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가리키며, 나아가 번역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주어진 상황적 맥락에서 번역 텍스트가 갖는 기능까지 고려한 작업을 포함한다.<sup>19</sup> 신구의 차이를 떠나서 제국의 언어 문화권 내에서, 번역의 주요 목표는 번역 자체의 존재를 은폐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텍스트의 언어 문화적 차이를 삭제하고, 텍스트를 도착 언어의 문화 지배소에 동화시킴으로써, 번역의 흔적을 지우고 외국 원저자의 의도를 자국의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sup>20</sup> 이 허구적 은폐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일이 번역 비평의 출발점으로, 번역 비평이 목표로 하는 이 작업은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안 찾기 과정으로 수렴한다.

충실성과 자유(배반)의 딜레마를 통해 앙트완 베르만이 환기했듯이, 모든 문화는 번역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조차 번역에 저항한다. 번역의 지향 자체가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텍스트 차원에서 열어가는 것이자 낯선 것을 들여오는 매개 작업이고 자국적인 것을 풍요롭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번역 작업 자체는 윤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번역은 언제나 문화의 중심 환원적 지향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인 것이다.<sup>21</sup> 로렌스 베누티에 의하면, “소수화하는 번역” 즉 혼종적 담론을 양성하여 잔여를 해방하고, 표준어와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에 열리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좋은 번역”에 이르는 길이다.<sup>22</sup>

19 수잔 바스넷, 엄재호 옮김, 『번역학 개론』, 인간사랑, 1993, 20~21쪽.

20 로렌스 베누티, 앞의 책, 2장 참조.

21 앙트완 베르만(2009), 앞의 책, 17~18쪽.

22 로렌스 베누티, 앞의 책, 27쪽. 베르만은 그 과정을—번역된 텍스트를 외국작품으로서 한번 읽기와 번역 작품으로서 또 한번 읽기라고 하는—번역 읽기 단계에서 시작해서, 문체 분석을 겸한 원문 읽기 단계, 원문과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번역물의 시스템을 탐구하는 단계, 번역관과 번역기획안, 번역 지평을 통해 번역 주체를 찾아 나서는 단계로 구체화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앙트완 베르만(1999), 앞의 책,

번역이 불가피하게 민족중심적 원심력과 기성의 문학적 문장과 정전의 구문이 만드는 하이퍼텍스트적 네트워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면, 이렇듯 베르만과 베누티는 그것을 인정한 채로 그 힘에 저항하려는 힘겨운 시도를 번역의 윤리로 명명한다. 그리고 정반대로, 충실성을 지향함으로써 본래적으로 윤리적 차원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번역은, 본질 자체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언어 공간에 낯선 것을 낯선 것 자체로 열어내려는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고 말한다.<sup>23</sup> 번역의 본래적 윤리성에 입각한 좋은 번역이란 당연하게도 단어나 구문의 선택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벤야민에서 베르만, 베누티에 이르는 ‘직역’의 번역론이 가시화하는 번역의 자리(혹은 과정)은 언어로 집약되고 표출되는 차이와 권력 위계를 가시화한다.

번역 작업이 내장한 위계들의 가시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번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번역의 윤리는 어떤 층위에서 구현되는가. 이 질문들은 번역 비평 차원에서 보자면, 번역 비평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벤야민에서 베르만에 이르는 번역 비평론은 원 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독서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이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위계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사실 베르만의 번역 비평은, 오히려 번역문의 ‘홀로서기’(tenir)를 강조하는 편에 더 가깝다. 번역문이 독립된 ‘텍스트’로서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번역의 “결여성”(défectivité)의 선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때 번역의 “결여성”은 오류나 실수, 누락이라기보다 번역 행위가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결함”이나 자민족중심적인 방식이나 의미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번역에 작용하는 “왜곡”을 가

37~68쪽; 정혜용,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독문학번역연구소 학술대회』 10, 한독문학번역연구소, 2019, 38쪽.

23 앙트완 베르만(1999), 앞의 책, 109쪽.

리킨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번역 비평은 언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번역하는 주체”로서의 번역가에 대한 탐색인 것이다.<sup>24</sup>

벤야민, 베르만, 베누티로 이어지는 번역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번역이 언어 간, 텍스트 간의 일로 한정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의 자리, 즉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적’ 공간은, ‘자동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중층적인 문화적 원심력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시도이자 그런 저항적 작동이 일어나는 번역자의 몸 아닌 번역자의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번역가가 중립적이고 매개적인 중재자가 아니듯, 문학 번역도 언어 간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소통이 될 수 없다.<sup>25</sup> 문학 번역은 무의식의 작동이라고 불러야 할 국가적, 언어적, 문화적 차원의 정치적 저항과 선택, 그리고 타협의 과정이다. 문학 번역은 언어 간, 국가 간, 문화 간, 텍스트 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성이 중첩된 위계 구조를 온몸으로 통과하는 일이며, 그 권력의 불균형성은 번역가의 위치성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번역가의 위치성이 좀더 선명해질수록, 번역의 정치성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정치성을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번역 비평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24 물론 “번역하는 주체”로서의 번역가에 대한 탐색이 번역 작업 자체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번역가가 번역을 바라보는 입장, 해당 번역의 기획, 번역가라는 주체에 침투하는 요인들까지가 포함된다. 이해원, 『『채식주의자』 불역본의 번역비평을 위하여—베르만의 번역비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실천』, 『프랑스어 문교육』 6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392~393쪽.

25 가령, 『채식주의자』의 불역 텍스트를 두고, 프랑스 번역가와 한국 번역가의 협업 작업의 어려움을 다룬 한 논문에서, 서로에게 ‘낯선’ 감각이 다르게 감지되었던 불일치의 면모들이 언급된 바 있다. 『채식주의자』의 불역 텍스트는 동양어문화대(INALCO) 교수 정은진과 프랑스와 아시아에서 출판업에 종사한 자크 바틸리요의 협업으로 번역되어 부커 국제상 수상 이전인 2015년에 출간되었다. 위의 글, 384쪽.

### 3. 번역 비평과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 *The Vegetarian*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을 둘러싼 논쟁은, 앞서 언급했듯 비록 오역 스캔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The Vegetarian* 번역에 관한 다층적인 분석과 함께 점차 번역 비평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와 동시에 번역 비평은 번역의 경계적이면서 (재)생산적-(재)생산적인 측면은 비평에도 해당된다-인 특수성을 통해 ‘한국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그 범주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차적으로는 원 텍스트인 『채식주의자』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형식적·의미론적 차이 또는 근접성에 대한 단순한 분석 수준을 넘어서, 번역 텍스트가 매개하는 의미 (재)생산의 기제와 코드화로까지 분석의 깊이를 심화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원저자와 번역가의 작업이 연동되는 일종의 연합체로서 문학 작품-번역 텍스트라는 개념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가령,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의 텍스트에 대한 번역적 독해(translational reading)를 수행하는 비평에서는 텍스트 분석에서 ‘한강과 데보라 스미스’의 텍스트 전략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묶는다.<sup>26</sup>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언어와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텍스트 및 글쓰기 주체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분석과 의미화가 가능해진다. 해당 비평에서는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텍스트를 엮어 한국적 정서로 간주되어 온 ‘한’이라는 감정

26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Han and Smith employ specific strategies to underscore the relevance of the comfort woman history to present-day discussions of sexual violence, both in Korea and in a more global context.” Claire Gullander-Drolet, “The Translation Politics of Han Kang’s *The Vegetarian*; or, The Task of the Reader of the Work in (English) Translation”,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38(3), 2023, p. 661.

의 프레임으로 함께 읽으며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 또는 상호보충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지점 등을 포착하는 문화적 번역에 의한 경계 넘기의 비평적 독법을 시도한다. 또 다른 예로는 번역 텍스트를 매개로 새롭게 정치·사회적으로 맥락화된 『채식주의자』의 원 텍스트-번역 텍스트 관계로부터 남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논평을 이끌어 내는 식의 독법 같은 것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이러한 비평적 대화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보다 상호 역동적인 사유와 실천 또한 어떤 도약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트랜스내셔널 문학에 대한 논의는 세계문학(World Literature)-흔히 1세계라고 불렀던 서구에 의해 창안된 문학의 세계화 프로젝트-나 디아스포라 문학-어떤 측면에서는 서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문학적 산물이면서 그에 따라 주로 서구 사회 내 이주민들에 의해 서구의 언어로 생산된 문학 장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보다 탈중심화된, 또는 다중적, 다채널적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될 것이다. 이때, 세계문학을 만들기 위해 영어로 번역된 소수 언어 문학, 또는 정전화된 서구 문학의 소수 언어로의 번역과 같이 번역의 출발 언어(원천 언어)와 도착 언어(목표 언어)에 언제나 영어(또는 불어와 같은 국제국주의 국가들의 언어)가 자리하는 서구중심주의적 번역 비평 다음 단계에 대한 사유와 실천 또한 수반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The Vegetarian*의 번역 정확성에 대해 이루어진 무수한 논평들과 그 뒤를 이은 영역본에 대한 번역 비평은, 가령 『채식주의자』에서 *The Vegetarian*으로, *The Vegetarian*에서 다시 스웨덴어로 증역된

---

27 Soo Choi, "Found in translation: A relational approach to Deborah Smith's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Journal of the Society for Asian Humanities*, 53, 2022.



*The Vegetarian*으로의 번역 과정과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비평의 사례와 같이, 문자 그대로 트랜스내셔널한 문학 번역 비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낳는다.<sup>28</sup> 『채식주의자』의 다른 외국어 번역 텍스트들—베트남어, 일본어, 스페인어(아르헨티나), 네덜란드어 번역본 등—이 영역본보다 먼저 또는 나란히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흐름의 출현은, 아직 본격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등장할 어떤 다른 문학 텍스트의 번역 비평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텍스트들 사이에서 비평적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대화는 원 텍스트와 다양한 번역 텍스트들 사이에 다원·다층·다면적 해석의 연결망을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벤야민적인 의미의 성과를 창조하는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까닭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문학 비평은 19세기 근대적인 시민 사회의 등장과 함께 체계를 갖추었으며, 가라타니 고진이 고찰했듯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네이션-스테이트 형성의 제도적·담론적 측면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어’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경계로 재설정하는 번역 비평은 어떤 점에서 그 자체로 문학에서의 모더니즘과 내셔널리즘으로부터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파라미터일 수도 있다. 특히 이는 과거 식민지였으며 근대의 타자로 구성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아우르는 이른바 제3세계 문학의 경우 포스트콜로니

28 한국어 원 텍스트—영역 텍스트—스웨덴어 중역 텍스트 간 번역 분석의 사례는 다음을 참조. Erika Lindberg, Han Kang's *The Vegetarian* in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English to Swedish, Stockholms Universitet, Bachelor's thesis, 2018.

열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벤야민의 번역과 번역 불가능성에 관한 이론을 전유하여 제시한 ‘문화적 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은유적인 번역 개념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공간(in-between)에서 “새로움이 세계 안에 출현한다(newness enters the world).”<sup>29</sup> 바바는 은유적인 번역의 개념으로서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자신의 삶을 서구 사회에 기입해 넣는 행위를 문화적 번역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혼종적인 문화적 담론의 공간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때 이 이주민의 삶, 곧 번역된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새로움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달려 있는데, 그 답은 “문학과 삶의 불확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만드는 연결 고리”, 즉,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기표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것이 아닌, “번역불가능한 것들과의 위험하고 은밀한 만남”에 있다.<sup>30</sup> 번역 비평은, 마치 바바 그 자신이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악마의 시』에 대한 비평 작업을 통해 문화적 번역의 담론 공간을 열어젖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 번역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담론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 비평적 실천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베르만이 강조한 번역의 윤리, 즉 번역은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텍스트 차원에서 열어가는 것이자 낯선 것을 들여오는 매개 작업이라는 윤리적 조건에 대한 숙고가 번역 비평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sup>31</sup> 앞서 바바 또한 강조했듯이, 벤야민이 말한 번역불가능한 것들, 즉 번역의 이국성-이질성(foreignness)과의 연

2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224~227.

30 Ibid., p. 227.

31 앙트완 베르만(2009), 앞의 책, 17~18쪽.

결이 새로운 것을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조건이고, 번역이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까닭이다. 다시, 베누티의 표현으로 좀더 구체화하자면, “다수 언어에 끊임없이 변화를 가하고, 그것에 소수적 성격을 부과하며, 비합법화하고, 탈영토화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언어의 근본적인 혼질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이른바 소수화하는 번역의 이론과 실천을 의미화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야말로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번역 비평에 요구되는 역할인 것이다.<sup>32</sup>

또, 한편으로 번역이 그 자체로 순수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베누티 식으로 말하면 혼질적이며), 번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층적인 의미화의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지고, 텍스트와 저자, 시스템 들 사이의 불균형적 관계, 달리 말하면 권력 관계가 번역에 내재한다는 번역의 정치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sup>33</sup>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세계화 과정 가운데 지난 30여 년간 이미 충분히 목도했듯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재화와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지배와 착취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데 동원되었던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문학에도 그와 흡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적인 위치에 놓인 언어와 문학을 동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즉 소수 언어 문학의 확대된 번역 시장과 증대된 노동력(번역가 또는 번역 AI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라 접근이 용이해진 번역 자원(원 텍스트)을 활용하여, 트랜스내셔널한 분업 체계 하에서 외국 문학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이념적 기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트랜스내셔널리즘 문학 번역 비평에는 번역의 윤리적·정치적 실천이 뒤따른다.

<sup>32</sup> 로렌스 베누티, 앞의 책, 25쪽.

<sup>33</sup> Susan Bassnett and Harish Trivedi, “Introduction: Of Colonies, Cannibals and Vernaculars”, ed. Susan Bassnett and Harish Trivedi, *Post-coloni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9, p. 2.

#### 4. 혼질성과 타자성의 문제: *The Vegetarian*을 둘러싼 번역의 윤리와 페미니즘 번역의 정치학

*The Vegetarian*의 오역 논쟁 이면에 가려진 권력의 문제는 번역 비평이 왜 번역의 윤리와 정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스미스의 오역에 대해 제기되었던 강도 높은 비판과 그에 맞선 옹호 사이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온 논쟁은 번역의 기술적인 정확성 여부, 문학 작품의 원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존중)을 둘러싼 근본주의적 입장 및 원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국문학’과 세계화 프로젝트의 ‘K-literature’ 사이에서 공전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쟁점 이면에는 좀더 복합적인 권력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타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윤리적 지향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이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한국문학 번역 비평은 결국 다시 제2의 ‘채식주의자 번역 논쟁’을 불러올 뿐이다. 그러므로 오역 논란을 넘어 번역의 정치적·윤리적 쟁점을, 최근에 이루어진 번역 비평의 논의와 함께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역 논쟁이 한창이던 2018년 데보라 스미스는, *The Vegetarian*과 『채식주의자』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며 그녀의 번역을 비판하는 한국 내 문학 비평가와 학자들의 반응에 대항하여 페미니즘을 논점으로 제기한다. 그녀는 두 버전 사이에 놓인 7년이라는 시간차와 간극, 그 사이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로 부부강간죄 성립을 거론한다. 즉,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이른바 페미니즘적인 변화의 물결이 두 버전의 텍스트에 대한 독법을 달라지게 한 컨텍스트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소설 속 두 여성 인물의 남편들이 가하는 성폭력이 마침내 가부장제의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이 소설 작품이

“(대체로 나이 많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문단의 기득권층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말한다.<sup>34</sup> 스미스의 부정확한 번역 때문에 한강의 원작이 가진 미학이 훼손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던 상황이 급반전하여 이제 논쟁의 초점은 번역의 정치학으로 이동했다. 스미스는 한국 남성 비평가들과 학자들이 “*The Vegetarian*의 미학에 압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러한 정치학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하나의 방식”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sup>35</sup>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정확성을 지적하는 문제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둘러싸고 있던 권력의 문제가 비로소 표면화된 것이다.

스미스의 오역에 대한 한국 남성 비평가 및 학자들의 비판에 민족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엘리트중심주의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문학의 왜곡된 구조를 염두에 둘 때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서구와 아시아 문학 및 문학 번역 사이에 애초부터 존재해 왔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역학 관계에 대한 의식적 자각 또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가 그러한 남성 지식인들의 반응 기저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세계화된’—달리 말하면 제국에 포섭된—‘민족의’ 여성 문학을 지배·억압·‘보호’하려는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콤플렉스와 그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은 그간 서구 중심으로—또 다시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적으로—불평등하게 작동해 온 ‘세계문학’의 역학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Vegetarian*이라는 텍스트의 정치적인 위치성은 부커 국제상 제도로써 ‘세계문학’이라는 권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자임하는 서구 문학의 호명어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34 Deborah Smith,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Jan 11, 2018.

35 Ibid.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스미스도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새삼 강조해 둔다.<sup>36</sup> 그러므로 페미니즘적 시각을 앞세워 한국 남성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반응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논의는 자칫 키클롭스의 눈처럼 균형 감각을 잃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기 쉽다.<sup>37</sup>

이쯤 되면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페미니즘 번역 비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가야트리 스피박의 아시아 서발턴 여성의 문제, 혹은 1970년대 유색 인종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발견한 백인 중산층 여성의 페미니즘에 내재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피박이 제국주의적 정치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위장과 억압의 역사를 해부하기 위해 만든 “백인종 남자가 황인종 남자에게서 황인종 여자를 구해 주고 있다”는 그 유명한 문장은 토착 민족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제국주의의 기획과 그 기획에 의해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지워져버리는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요약해 준다.<sup>38</sup> 스피박은 이 관계에 때때로 백인 여성도 끼여든다는 부연 서술을 괄호 안에 묶어 두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스피박의 문장을 앞서 언급한 *The Vegetarian* 번역 논쟁을 둘러싼 한국 남성의 민족주의, 서구 중심의 세계문화 역학에 내재한 제국주의적 속성, 그

36 2018 Pyeongchang Humanities Forum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의 수상 사실이 번역에 대한 저의 접근법을 최선의 혹은 유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접근법이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에서 작업한다는 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에는 역시 어떤 종류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선망하는 형태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Deborah Smith, “우리가 번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 2018 Pyeongchang Humanities Forum, 2018, 1.20. 포럼의 이 발표는 위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에세이는 다음을 참조. Ibid.

37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논의로 다음의 논문을 거론할 수 있겠다. Min Young Godley, “The Feminization of Translation: Gender Politics in the Translation Controversy over Han, Kang’s *The Vegetarian*”, *Meridians*, 20, 2021.

38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460~463쪽.

리고 서구 백인 페미니즘의 복잡한 관계를 묘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쓴다면 다음과 같이 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백인 여성 페미니즘이 아시아 남성 민족주의로부터 아시아 여성 문학을 구해 주고 있다.’ 유색 인종 여성 페미니즘에 의해 비판적으로 고찰되었듯이, 백인 여성 페미니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영속화에 가담한 사실을 외면 또는 은폐했다.<sup>39</sup>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증첩된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남성과 여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이분법으로 아시아 여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지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와 같이 동일성의 페미니즘이 떨쳐내지 못한 환상 속에서는 차이를 삭제한 문화적 동화주의가 작동할 위험을 감지할 수 없다.

베르만과 베누티 같은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때 제국의 권력을 떨쳤던 영미와 프랑스의 ‘동화주의적’ 또는 ‘자국화’하는 번역 전통에 내재한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을 대조하며 창조적 번역과 윤리적 번역의 문제를 공히 다룬 연구에서도 스미스의 번역을 그러한 영미권의 자국화 번역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sup>40</sup> 사실 스미스가 항변하는 것처럼 ‘창조적 번역’을 위해 전유한 것이라기에는, 창조성의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번역가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의적인 – 삭제와 생략이 그녀의 번역에서 과도하고 빈번하게 발견된다.<sup>41</sup> 과연 창조성이 윤리성보다 우선순위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논쟁적인 물음은 차치하더라도, 스미스의 번역

39 관련하여 다음의 저서 4장 참조. 벨 훅스, 노지양 옮김, 『난 여자가 아닙니다? – 성×인종×계급의 미국사』, 동녘, 2023.

40 이인규, 앞의 글, 190쪽.

41 위의 글, 191~195쪽.

방식이 타자로서의 텍스트를 자신의 편의와 주관에 따라 휘두른 문제에 대해 번역의 창조성이라는 알리바이를 내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베누티는 말한다. 번역이 원 텍스트의 번역물이라는 2차적 의미와 열등한 가치를 벗어나 ‘좋은 번역’—즉 스미스가 주장한 ‘창조적 번역’ 작업—으로서 주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소수화’하는 번역을 통해 담론의 혼질성을 증가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sup>42</sup> 이때 담론의 혼질성은 당연히 번역가가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번역가의 창조적 역량이 영미권의 번역 전통에서 지배적인 동화주의적 번역, 즉 번역가가 자신의 자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훌륭한 자국어 문학 작품과 진배없이 읽히는 번역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의 탈영토화 이론과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의 ‘이질적 요소들의 공시적 통일체’ 개념을 참조하는 베누티는 환원적인 코드화에 포섭되지 않은 “잔여태를 해방시킴으로써 다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외국성(the foreign)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3</sup> 그러한 ‘외국성’, 윤리학적 개념으로 치환한다면 타자성을 지향하기 위한 번역은 “(자국의) 표준어와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 열리게 하는 번역”이어야 한다.<sup>44</sup>

이와 대조적으로, *The Vegetarian*의 ‘창조적 번역’은 번역가의 미학적 자율성을 통해 영문학적으로 뛰어난 수준과 가치를 확보한 번역 텍스트를 탄생시키는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인터뷰에서 스미스는 자신이 속한 영미권 번역가 주류가 원 텍스트에 대한 충실

---

42 로렌스 베누티, 앞의 책, 25쪽.

43 위의 책, 24~25쪽.

44 위의 책, 27쪽.



성을 시대착오적이고 유용하지 않은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영미권 번역 풍토를 언급하며, “한국 문학에서 위대한 작품을 번역한다면, 그 번역은 영국 문학에서도 위대한 작품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45</sup> 영국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 열리게 하기보다는, 영국 문학 정전의 기준으로 수렴시키는 방식의 동화주의가 번역가의 자유로운 운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학적 자율성 및 창조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라면 스미스 자신과 그녀를 비판했던 한국 남성 비평가 및 학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학적 자율성은 여성문학에 가해진 억압과 차별 구조를 유지하는, 그리하여 오랫동안 남성 비평가와 학자들에 의해 신봉되어 온 문학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미스의 오역에 대한 남성 지식인들의 비판이 결코 ‘타자와의 관계 맺음’으로서의 번역의 윤리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같지만 다른 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원작’의 아우라를 상실케 할 수 없다는, 문학 작품에 대한 근본주의적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의식이 과도하게 투여된 그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한편,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에 대한 저간의 논의가 심화되면서 번역 비평은 페미니즘 정치학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비평에서는 오역 논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스미스의 페미니즘 번역 작업이 갖는 의미를 원 텍스트와의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sup>46</sup> 원 텍스트에서 번역 텍스트로 이야기가 옮겨질 때, 페미니즘적으

<sup>45</sup> Deborah Smith(2014), op. cit., Accessed Nov 7th, 2023.

<sup>46</sup> 오은교, 『페미니즘 문학 번역의 시차: 한강의 『채식주의자』 독어본 번역 비평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8,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19; Sun Kyoung

로, 또는 그와 반대로 가부장주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대화나 묘사, 그것들의 복합적인 구성물로서의 인물의 성격(캐릭터)과 인물들 간의 관계 및 구도 등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탤릭체 사용, 특정 단어나 구의 첨가 및 변형-예컨대 한 남성 영문학자에 의해, 원작에서는 “절망적 몸부림을 통해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해 준열하게 제기했던 문제”를 ‘외설’로 왜곡한 사례라고 지적되었던 ‘grotesque’에서 ‘obscene’으로의 단어 변형<sup>47</sup> - 등의 사례에 주목하여, 남성중심주의적인 무의식이 내재한 한강의 『채식주의자』 텍스트가 스미스의 번역을 통해 전유되어 명시적인 페미니즘 소설로 재구성된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논의들은 일견 시사적이다.<sup>48</sup> 원작 소설집의 해설만 놓고 봐도, 인혜의 남편과 영혜 사이의 관계가 “모든 창조 작업을 포괄하는, 비유적인 의미의 ‘글쓰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열어보”이는 예술에 대한 지독한 열정과 욕망, 자기 희생과 수난으로 해석되는 등, 실제로 원작 소설 출간 당시의 맥락에서는 영혜와 인혜 자매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적인 억압과 폭력이 충분히 페미니즘적으로 독해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The Vegetarian*은 ‘원작’에는 누락되었던, 또는 ‘원작’에서는 충분히 담론화되지 못했던 페미니즘 담론을 이끌어냄으로써, 베누티 식의 담론의 혼질성을 증가시키는 번역의 윤리를 실천한 셈이 된다. 동시에 원작, 작가, 그리고 창작 행위에 부여되어 온 우월성의 환상과 신화, 거기에서 비롯되는 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는 번역의 정치적 기획이 가진 의의를 뚜렷하게

Yoon, “Deborah Smith’s fidelity: *The Vegetarian* as feminist translation”, *Journal of Gender Studies*, 30(8), 2021; 우경조·임향옥, 「젠더번역 관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47 김번, 앞의 글, 20~21쪽.

48 Sun Kyoung Yoon, op. cit., pp. 943~944.

49 허윤진, 「해설-열정은 수난이다」,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16, 228~229쪽.

보여준다.

그런데 다른 한편, 번역을 매개로 『채식주의자』의 영혜라는 인물이 서구중심적 사고 체계 하에서 형성된 전형적인 ‘동양의 ‘미친 여자’로 호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또 다른 비평적 시선은 번역 비평의 정치학이 얼마나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일 수 있으며, 그래야 하는지를 더욱 강력하게 시사한다.<sup>50</sup> 이를 과도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은, *The Vegetarian*을, 이제는 서구 여성 문학 비평의 고전적 독법으로 자리 잡은 ‘다락방의 미친 여자 소설(madwoman fiction)’로 획일화하여 읽는 경향이 실제로 서구 비평가들의 독해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sup>51</sup> 게다가 이러한 환원주의적 해석은 인혜라는 인물을 서구 페미니즘의 기준에서 볼 때 좀 더 ‘페미니즘적인’ 성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번역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낳은 효과이기도 하다. 한 페미니즘 번역 비평은, 번역 텍스트에서 인혜를 가부장제에 순종적인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 원작의 요소나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억압에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인혜와 영혜의 자매애가 더욱 부각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sup>52</sup>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능동성이 아닌 것들은 모두 수동성으로 규정하는 지극히 단순한 이분법에서 출발하여, 능동적인 여성 주체의 재현만이 페미니즘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규범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인물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재현하고 여성 인

50 오은교, 앞의 글, 703쪽.

51 Claire Gullander-Drolet, op. cit., p. 654.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madwoman fiction’으로 읽는 비평의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 Magdalena Zolkos, “Bereft of Interiority: Motifs of Vegetal Transformation, Escape, and Fecundity in Luce Irigaray’s Plant Philosophy and Han Kang’s *The Vegetarian*”, *Substance*, 48(20), 2019; Alix Beeston, “The Watch-Bitch Now: Reassessing the Natural Woman in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Charlotte Wood’s *The Natural Way of Thing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45(3), 2020.

52 Sun Kyoung Yoon, op. cit., pp. 945~946.

물들 간의 연대를 전경화할 때, 문학 텍스트는 진정 페미니즘적인 것이 되는가? 서발턴 여성에 대한 스피박의 논의가 남긴 매우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주체의 재현을 둘러싼 유토피아적 정치의 위험성이다. 어떤 주체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과 그 주체의 목소리를 대변(representation)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둘을 단순하게 결합시키고, “특히 두 진영 너머에서는 피억압 주체들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안다고 말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본질주의적 유토피아 정치를 초래한다.”<sup>53</sup> 어떤 주체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저항적으로 재현한다고 해서 억압과 지배, 착취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조 하에 놓인 주체 또한 필연적으로 해방되는 것도 아니다. 강조하건대, 어떤 여성을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모습 대신 능동적, 독립적, 저항적, 여성연대적인 인물로 재현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해체와 여성 해방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 달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역전시켜 생각해 보면, 번역 텍스트에서 인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구 엘리트) 페미니즘적 전유가, 오히려 인혜처럼 한국의 가부장주의적 인식 구조 하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시아 여성의 타자적인 경험과 위치를 은폐하는 측면이 있다. 주체로 구성되지 못한 타자의 언어와 삶을 주체의 언어로 재현할 때, 주체의 언어로는 재현/대변될 수 없는 타자성은 언어적 재현의 성긴 갈퀴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게다가 스미스의 번역을 페미니즘 번역으로 상찬한 윤선경의 논평대로 “*The Vegetarian*이 훨씬 더 가부장주의적인 한국의 콘텍스트에는 부재하지만, 리버럴한 영어권 문학을 향한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포함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sup>54</sup>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원 텍스트

<sup>53</sup>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앞의 책, 413쪽.

<sup>54</sup> Sun Kyung Yoon, op. cit., p. 943.

내 한국적 가부장주의 요소를 중화하기 위한 ‘페미니즘적’ 번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 페미니즘이 제국주의에 가담하는 문화적 동화주의의 실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생산의 언어·지식·문화 기제에 핵심적이었던 번역이 “불균형한 힘의 논리에 의한 번역 과정”을 통해 초래했던 “유럽적 젠더 개념의 전지구적 동질화” 현상과 묘하게 겹쳐진다.<sup>55</sup> 『번역의 정치』란 글에서 스피박이 “동화된 포스트식민주의자인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스트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공유된 페미니즘적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환기하며 정말로 번역에 나설 때 이 싸움은 특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던 바를 상기시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sup>56</sup>

요컨대, 다양한 여성의 언어와 삶에 가해지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억압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번역과 번역 비평은, 한때 서구 백인 여성 중산층 페미니즘이 유색 인종 여성 페미니즘과 제3세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억압했던 과오를 다시 범할 수 있다. 번역 텍스트와 번역가, 그리고 비평의 위치가 결코 중립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만큼, 페미니즘 번역과 페미니스트 번역가, 그리고 페미니즘 번역 비평의 위치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문학 번역과 번역 비평에는 그러한 위치성에 대한 정치적 사유와 실천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번역 비평의 새로운 논점들

중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번역의 정치성과 번역가의 위치성이

55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 밖』 32, 영미문학연구회, 2012, 307쪽.

56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옮김,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 갈무리, 2006, 351쪽.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번역과 번역된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수 언어로 쓰인 한국문학에 내장된(혹은 번역 비평을 통해 가시화되고 구축되는) 복합적 정치성은 한국문학의 (재)생산의 메커니즘과 그 범주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번역가를 존중하고 번역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번역과 번역가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청에 그치지 않고, “번역가 없이 K문학 열풍은 없다”<sup>57</sup>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sup>58</sup> 공부정의 의미를 품은 채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진입한다는 식의 논의에서 나아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재규정되고 있으며, 번역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의 맥락이 고려된 채로 한국문학이 다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10개 이상의 언어권에 소개되고 10만부 이상 판매되어 세계문학 텍스트로 자리 잡은 『채식주의자』나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작품은 ‘한국문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연구영역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편입되어야 한다거나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면모를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문학’의 함의를 다시 묻게 한다. 오역 논란 이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의 정치적, 윤리적 쟁점을 통해 번역의 정치성과 번역가의 위치성에 대한 논의를 탈중심화된, 또는 다중적, 다채널적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패러다임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페미니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는 서구 중심적 구도 속에 재배치되는 소수 언어권 문학

57 김영화, 「번역가 없이 K문학 열풍은 없다」, 『시사HN』, 2023.2.2.

58 번역과 번역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살피고 문학 번역을 둘러싼 문제와 과제를 다각도로 살핀 책 『K 문학의 탄생』(조의연·이상반 엮음, 2023)의 부제인 ‘한국문학을 K 문학으로 만든 번역이야기’에서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 자리를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요컨대, 언어와 문화, 국경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텍스트 연합체를 대상으로 번역, 문학 번역, 그리고 번역가의 작업에 주목하는 번역 비평이 한국문학이라는 규정에 관한 새로운 논점 구성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번역의 시차 문제를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물론 이 시차는 앞서 언급해온 것처럼,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창조와 변용으로 구현되며, 어떤 경우든 번역 텍스트는 자체로 이미 출발 언어(원천 언어)와 도착 언어(목표 언어) 그리고 문학과 문화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들의 혼성물이자 정치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sup>60</sup> 문학상 수상작이나 후보작이 세계문학으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미학성을 공증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어디까지나 주요 언어권 ‘바깥’의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말해 주요 문화권 바깥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호명되거나 배치되고 있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나 정보라의 『저주토키』가 그러하듯, 국내에서의 주목도가 크지 않았던 소설이 해외에서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작이 될 때,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주목을 끌게 되거나 재평가

59 주지하다시피 (좀더 세분화하면 언어권별 차이도 있겠으나 이런 것들을 차치한 채 살펴보더라도) 해외 국제 문학상의 수상작과 실제로 독자들이 읽은 작품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 사실상 비영미권 문학의 번역 소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천명관의 『고래』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주요 국제문학상을 통해 주목받은 소설들은 국내에서의 출간 시기와 꽤 큰 시간적 격차를 갖는다. 최근 그 간극이 좁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더 큰 격차가 사실상 문화적 정치학의 차이로 (비)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종종 번역가의 취향이나 도착 언어 문화권의 독서 환경 변화의 문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번역의 시차에는 타문화를 사유하는 관성적 사고방식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가령, ‘한국적인 것’으로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지만, 실상 한국적 요소를 거의 찾지 어려운 정보라의 『저주토키』를 떠올려 보자. 영미권 독자들의 『저주토키』에 대한 관심을 두고 러시아권 민담과의 친연성, 즉 친숙한 비영미권의 서사나 영미 문화권에서 충분히 ‘보편화될’ 특수한 서사로서의 면모가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였던 것은 아닌가 추론해보게 된다.

60 진 보즈 바이어, 정영목 옮김, 『문학의 번역』, 강, 2017, 102쪽.

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내의 문학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up>61</sup> 한국문학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짚어두자면, 다중적, 다채널적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문학의 번역이 ‘문화’의 번역이자 ‘한국’의 번역이라는 인식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적 작업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번역 문학에 대한 이해나 의미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안 파워의 부상과 한국의 선진국화와 같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 변화가 문학적, 문화적 위치성을 마련하거나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드리웠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된 한국문학 가운데 해외에서 주목받은 작품들이 대개 장편인 경향과 비교하자면, 테마가 뚜렷하게 일관되지는 않은 단편들의 묶음인 작품집 『저주토키』가 해외 문학출판계의 관심을 끈 것은 조금 더 흥미해 봐도 좋을 흥미로운 현상이다. 들여다보자면, ‘한국적인 것’의 규정을 둘러싼 다층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한국어본 『저주토키』의 목차가 「저주토키」, 「머리」, 「차가운 손가락」, 「몸하다」, 「안녕, 내 사랑」, 「땃」, 「흉터」, 「즐거운 나의 집」,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 「재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어본의 목차는 The Head, The Embodiment, Curse Bunny, The Frozen Finger, Snare, Goodbye, My Love, Scars, Home Sweet Home, Ruler of the Winds and Sands, Reun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 페미니즘적 성격이 좀더 강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변화가 눈에 띄지만, 한국문학 내의 관계도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없는, 혹은 해외에 소개되고 있는 ‘K-컬처’ 붐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면모이기도 하다. 가령, 김혜순

61 이형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9(4), 한국번역학회, 2018, 195~196쪽.



의 시를 독일어권에 번역 소개하고자 하는 박술 번역가는 “팝 문화 현상인 한류라는 흐름”을 한국시의 소개에 전략적으로 유용한 지점으로 짚고 있기도 하다.<sup>62</sup>

권력의 위계는 단층이 아니며 관계도의 층위도 한 겹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면, 최근 번역본인 *The Vegetarian*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 포스트휴먼 테마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채식주의자』에서 『82년생 김지영』, 『딸에 대하여』, 『저주토키』로 이어지는 작품이 계보화되면서 만들어내는 ‘한국’ 혹은 발견된 ‘한국문학’을 두고도 다른 각도의 고찰이 세심하게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앞서 페미니즘 번역의 중층적 이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 페미니즘 문학의 세계문화적 지형 위에서 페미니즘 번역 작업 자체의 의미가 확보되며 그 배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번역의 피할 수 없는 정치성으로서 환기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문화와의 관계도 속에서 의미를 마련하고 있는 한국문학은, 전면적인 관점의 전환을 통해 아시아권에서 유교적 가부장제를 기원으로 한 젠더 문제를 오가며 공감의 영역을 만들어 내거나<sup>63</sup> 전세계적인 페미니즘의 흐름과 접속하고 있기도 하다.<sup>64</sup>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거나 두텁게 하고 있는 역설적 측면들 또한 적극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독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복잡한 관계도와 층위들의 틈새에서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한국 역사를 다루는 소설과 자전적 기록물<sup>65</sup>들을 통해 한국이 포함적 배제의 존재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62 은유,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 인다, 2023, 241~242쪽.

63 구라모토 사오리, 승미 율김, 『K문학이 견인하는 ‘연대’의 가능성』, 웹진 《비유》 18, 2019.6.

64 이정화 에디터, 〈지난 5년간 해외가 주목한 ‘K-문학’…여성·성장·가족 키워드에서 강했다〉, 《SBS 뉴스》, 2022.2.21.

65 *Crying in H Mart* (Michelle Zauner, 2020; 미셸 자우너, 정혜윤 율김, 『H마트에서 울다』, 2022), *Pachinko* (Min Jin Lee, 2017; 이민진, 신승미 율김, 『파친코』, 2021)나

이민자를 포함한 ‘한국’으로 상상되고 있음을 환기해 둘 필요도 있다. 이러한 작업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는 영어로 쓰인 한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정주민을 가로지르는 경계를 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의 이면을 통해 한국을 성찰하게 하는 시선으로 작동한다. 물론 그 시선은 긍정으로 확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으로, 그렇기에 여기서 ‘한국’은 과거화되는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번역되어 재형성되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발견되는’ 한국문학을 둘러싼 이러한 국내외적 관점을 중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번역비평의 이름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

*Beasts of a Little Land* (Juhea Kim, 2021; 김주혜, 박소현 옮김, 『작은 땅의 야수들』, 2021), *Tastes Like War: A Memoir* (Grace M. Cho, 2021; 그레이스 M. 조, 주해연 옮김, 『전쟁 같은 맛』, 2023).

## :: 참고문헌

### 1. 논문

- 곽효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2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김번,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 영미문학연구회, 2017.
- 김영신,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6.
-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 밖』 32, 영미문학연구회, 2012.
- 오은교, 『페미니즘 문학 번역의 시차—한강의 『채식주의자』 독역본 번역 비평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8,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19.
- 우경조·임향옥, 『젠더번역 관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2),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2), 한국영어영문학학회, 2011.
- 이강선, 『고백락에서 저백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겨레어문학회, 2016.
- 이인규,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한국번역학회, 2017.
- 이종호, 『한국문학번역장의 형성과 세계문학을 향한 열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2, 구보학회, 2022.
- 이지민,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반응 비교 연구』, 『번역학연구』 19(4), 한국번역학회, 2018.
- 이형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9(4), 한국번역학회, 2018.
- 이혜원, 『『채식주의자』 불역본의 번역비평을 위하여—베르만의 번역비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실천』, 『프랑스어문교육』 6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 조의연·조숙희,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연구』 20(5), 한국번역학회, 2019.
-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90, 2017 봄.

- Beeston, Alix, "The Watch-Bitch Now: Reassessing the Natural Woman in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Charlotte Wood's *The Natural Way of Thing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45(3), 2020.
- Casey, Rose, "Willed Arboreality: Feminist Worldmaking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0.
- Choi, Soo, "Found in translation: A relational approach to Deborah Smith's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Journal of the Society for Asian Humanities*, 53, 2022.
- Godley, Min Young, "The Feminization of Translation: Gender Politics in the Translation Controversy over Han, Kang's *The Vegetarian*", *Meridians*, 20, 2021.
- Kim, Wook-Dong, "The "Creative" English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by Han Kang", *Translation Review*, 100, 2018.
- Lee, Seul, "Enforced Conviviality and the Violence of Care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2.
- Lindberg, Erika, Han Kang's *The Vegetarian* in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English to Swedish, Stockholms Universitet, Bachelor's thesis, 2018.
- O'Key, Dominic,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reading with and against world literary prestige," *Textual Practice* 36(8), 2021.
- Sands, Danielle, "Interrogating "Feeling Politics": Animal and Vegetal Empathy in Han Kang's *The Vegetar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023.
- Yoon, Sun Kyoung, "Deborah Smith's fidelity: *The Vegetarian* as feminist translation", *Journal of Gender Studies*, 30(8), 2021.
- Yun, Charse, "How the bestseller *The Vegetarian*, translated from Han Kang's original, caused an uproar in South Korea," *Los Angeles Times*, Sept. 22, 2017.
- Zolkos, Magdalena, "Bereft of Interiority: Motifs of Vegetal Transformation, Escape, and Fecundity in Luce Irigaray's Plant Philosophy and Han Kang's *The Vegetarian*", *Substance*, 48(20), 2019.

## 2. 단행본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_\_\_\_\_, 태혜숙 옮김,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 갈무리, 2006.
- 로렌스 베누티, 임호경 옮김,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 벨 훅스, 노지양 옮김, 『난 여자가 아닙니까? - 성×인종×계급의 미국사』, 동녘, 2023.

수잔 바스넷, 엄재호 옮김, 『번역학 개론』, 인간사랑, 1993.  
 앙트완 베르만, 윤성우·이향 옮김,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철학과현실사, 2009.  
 \_\_\_\_\_,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철학과현실사, 1999.  
 윤성우·이향, 『번역학과 번역철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은유,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 인다, 2023.  
 조의연·이상빈 외, 『K문학의 탄생』, 김영사, 2023.  
 진 보즈 바이어, 정영목 옮김, 『문학의 번역』, 강, 2017.  
 폴 리리르,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2006.  
 Bassnett, Susan and Trivedi, Harish, *Post-coloni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9.  
 Berman, Antoine, trans. by S. Heyvaert,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Han Kang, trans. by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London: Portobello, 2015.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2008.

### 3. 기타

구라모토 사오리, 승미 옮김, 「K문학이 견인하는 ‘연대의 가능성’」, 웹진 《비유》 18, 2019.6.  
 권영민, 「세계 무대 위의 한국문학」, 『2022년도 상반기 한국근대문학회 제46회 학술대회: K-리터리처를 말한다』, 2022.8.13.  
 김영화, 「번역가 없이 K문학 열풍은 없다」, 『시사IN』, 2023.2.2.  
 이정화 에디터, 〈지난 5년간 해외가 주목한 K-문학...여성·성장·가족 키워드에서 강했다〉, 《SBS 뉴스》, 2022.2.21.  
 정혜용,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독문학번역연구소 학술대회』 10, 한독문학번역연구소, 2019.  
 황정아,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2022년도 상반기 한국근대문학회 제46회 학술대회: K-리터리처를 말한다』, 2022.8.13.  
 『“가야금을 영어로 하면?”...한국말 서툴지만 한국시에 빠진 미국 시인』, 『매일경제』, 2023.6.7.  
 『“고래” 번역한 김지영 “민담 같은 문체·비꼬는 유머에 신경 썼죠”』, 『연합뉴스』, 2023.4.20.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 첫 장 열겠다”』, 『한겨레』, 2021.7.6.  
 Smith, Deborah,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The Vegetaria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June 15th, 2014. Accessed Nov 7th, 2023.  
 \_\_\_\_\_,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Jan 11, 2018.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영어본 텍스트인 *The Vegetarian*을 둘러싼 오역 논쟁을 메타적으로 검토하고, 가시화된 문학 번역을 둘러싼 논점을 예각화하면서, 그간 본격화되지 못했던 번역 비평을 시도하였다. *The Vegetarian*의 국제문학상 수상 이후로 문학 번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논의는 오역 논쟁에 갇혀 문학 번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진전되지 못했다. 번역은 언어 간, 국가 간, 문화 간, 텍스트 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성이 중첩된 위계 구조를 온몸으로 통과하는 일이며, 그 권력의 불균형성은 번역가의 위치성을 통해 가시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문학 번역을 번역의 정치성과 번역가의 위치성으로 가시화되는 권력 문제의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오역 논쟁을 문학 번역의 이론적 실천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Vegetarian*을 둘러싼 오역 논쟁의 이면에 가려진 권력의 문제는 번역 비평이 왜 번역의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번역 비평에 의한 이러한 검토는 번역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한국문학’의 중층적 구성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문학 번역, 번역 비평, 혼질성, 타자성, 외국성, 오역 논란, 번역의 윤리, 번역의 정치, 번역가의 위치성, 페미니즘 번역,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 Summary

##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Prospects of Translation Criticism

on the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So, Young-hyun · Bae, Haeun

This article seeks to expand translation criticism beyond the scandal of translation. It delves into the heated debate surrounding the alleged mis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illuminating critical issues in literary translation, especially following *The Vegetarian's* win of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Despite ongoing discussion, there has been a lack of a deeper rethinking on these significant matters. Translation goes through the hierarchy structured by inequalities among languages, nations, cultures, and texts, which is often unveiled by a translator's positionality. Hence, this article discusses literary translation within the dimension of power dynamics through the lens of the politics of translation and positionality of translators, while revisiting the controversial scandal of *The Vegetarian's* alleged mistranslation by employ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 to literary translation. The overshadowing issue of hierarchy within literary transl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based on the ethics and politics of translation. This discussion on translation criticism aims to offe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discovered Korean literature' and its multi-layered contexts associated with 'the translated Korea.'

keywords :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criticism, hybridity, otherness, foreignness, mistranslation controversy, ethics of translation, politics of translation, position of translator, feminist translation,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이 논문은 2023년 12월 15일에 접수되었으며, 2024년 1월 29일에 심사를 거쳐 202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